

고려초기 보경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의 일고찰 (高麗初期 寶鏡寺 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一考察)

鄭 恩 雨

(목원대학 강사)

목 차

I. 머리말

II. 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造成時期

III. 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樣式考察

1. 불상

2.菩薩像

IV. 맺음말

I. 머리말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내영산(內迎山) (구 청하현(淸河縣)) 밑에 위치한 보경사(寶鏡寺)에는 고려시대의 유물로 생각되는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과 금당탑(金堂塔)이라 불리우는 석조오층석탑(石造五層石塔), 그리고 1222년에 조성된 원진국사(圓眞國師) 비(碑)와 부도(浮屠) 등이 남아있어 당시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¹⁾ 그 중에서도 특히 적광전(寂光殿)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등신대의(본존불 138cm, 보살입상 183cm)크기에 가까운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질게 반영하고 있는 복고적인 불교조각품으로서 고려초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삼존불상의 양식에 나타나는 보수성은 청하현(淸河縣)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이곳에서 활약하던 조불공(造佛工)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청하현(淸河縣)은 원래 신라(新羅)의 해아현(海阿縣)으로 고려시대에 이르러 청하현(淸河縣)으로 개칭되었으며 그후 현종(顯宗)때에 경주(慶州)에 예속되었다.²⁾ 따라서 고려초기에 경주 주변 구신라 영역내의 불상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

1) 현재 보경사에 남아있는 유물중 5층 석탑은 寂光殿앞에 놓여있는데 『寶鏡寺 金堂塔器』에 의하면, 顯宗 3月 27日 (1023年) 道人 覺人和 文遠이 절이 있는데 탑이 없을 수 없다 하여 靑石으로 5층탑을 조성하였다 한다. 그러나 四溟大師 惟政撰이라는 『金堂塔記』의 연대에 오기가 많아 그 신빙성 여부는 5층탑의 자세한 연구를 통해 확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李鍾益, 『寶鏡寺의 事蹟과 史話』, (甘露堂, 1980), pp. 38~39, 원진국사의 비(보물 252호)와 부도(보물 403호)에 대해서는 『石造』 韓國佛教美術全集, (同和出版社, 1973) 도판 77 및 鄭永鎬 編著, 『國寶石造』 (藝耕産業社, 1983), 도판 87 p.68과 도판 225 p. 167 참조 그리고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朝鮮寺刹史料』 上, (高麗書林), pp. 370~375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3 淸河縣 建置沿革條 참조

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주장되어 오던 견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 시기 불교 조각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³⁾

대체로 10세기 무렵의 고려초기 불교 조각품들 가운데는 지역적인 특징에 의거하여 유파로 나뉘어 인식되고 있는 독특한 불상군들이 있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⁴⁾ 당시 강원도 명주(溟州)의 호족(豪族) 왕순무(王順武)와 도굴산파(闔嶺山派) 선문(禪門) 세력등을 배경으로 제작된 원통형 보관에 무릎 꿇은 공양자세의 보살군과 개태사(開泰寺) 석조삼존불상(石造三尊佛像)을 비롯한 관촉사(灌燭寺), 대조사(大鳥寺) 석조보살입상(石造菩薩立像)과 같이 충청도 지역에 모여있는 마치 기둥같은 신체에 묵중한 들의 괴량감이 강조된(巨佛)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불상 이외에도 신라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신라 지역내 조상군(造像群)들 또한 크게 주목된다. 이 지역의 불상들은 같은 시기에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동일 유형의 상들이 밀려있는 것과는 달리 그 이전 시대인 통일신라 불상 표현의 여러 경향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즉 이 보경사 삼존불상을 비롯하여 청도(靑道) 운문사(雲門寺) 석조불좌상(石造佛坐像)이나 예천(禮泉) 청룡사(靑龍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그리고 봉화(奉化) 천성사(天聖寺) 석조불입상(石造佛立像) 등의 유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시대의 불상들을 범본으로 삼으면서도 각기 변형된 형식(形式)과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보경사 삼존불상에 대한 연구는 구신라 지역의 불상의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고려초기 불교 조각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경사 불상에 대해서는 그 존재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아직 독립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⁶⁾ 이 글에서는 먼저 문헌 자료를 통해 조성시기 등을 생각해본 다음 본존불과 양협시보살상으로 나누어 형식 및 양식적 특징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삼존불상의 성격과 양식 계보 및 조각사적 의의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불상 연구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앙 양식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규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자료 소개의 측면에서 제작 시기와 양식 분석 등에 치중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II.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조성시기(造成時期)

- 3) 文明大, 「高麗·朝鮮時代の彫刻」, 『韓國美術史의 現況』(藝耕 1992), p. 210참조
- 4)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毘盧遮那丈六三尊佛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호, 1981. 12. pp.1~11; 金春實, 「忠南 連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 一本尊像과 右脇侍 菩薩像이 代後의 模作일 가능성에 대하여-」, 『百濟研究』 21輯(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0, 12) pp. 321~347; 崔聖銀, 『溟州地方의 高麗 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佛教美術』 5, 1980 pp 56~78;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研究」, 『考古美術』 166, 167 합집(1985,9)pp. 57~87 참조
- 5) 黃壽永, 編著, 『國寶 4 石佛』(예경, 1985), 도판 136, 161, 163 참조, 그리고 구신라 지역내의 불교 조각품들이 충청도나 강원도와 달리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된 불상의 형식이나 양식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한 원인으로서 고려의 親新羅 정책으로 전통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점과 신라인들의 옛것에 대한 향수 및 강한 집착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慶州崔氏, 海州崔氏, 慶州金氏 등 당시 활약했던 경주내의 여러 호족세력 사이의 서로 다른 불교 종파적 배경 등도 그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朴龍雲, 「高麗 家産官僚制說과 貴族制說에 대한 檢討」 『高麗社會의 貴族制說 官僚制論』, (知識産業社, 1988) pp. 141~174)
- 6) 文明大, 「高麗· 塑木佛像의 研究-元曉寺· 塑千佛像과 鳳林寺 木阿彌陀佛像을 中心으로」, 『考古美術』 166, 167 (1985, 9) p. 83

보경사(寶鏡寺) 비로자나삼존불상(毘盧遮那三尊佛像)의 조성연대를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상(像)과 비교할 수 있는 고려초기(高麗初期)의 재명불상(在銘佛像)이 매우 적으며 또 조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조차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쓰여진 몇 개의 단편적인 문헌기록들 중에 보경사 및 불상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 상의 조성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보경사 불상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은 1793년 당시의 주지 동봉화상(東峰和尚)이 쓴 「내연산보경사사적기(內延山寶鏡寺事蹟記)」로서 창건시 금당(金堂)에 안치되었던 불상(佛像)과 고법당(古法堂)의 금불삼존(金佛三尊)에 대해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⁷⁾ 특히 고려시대 고종2년(高宗2年)(1215年)에 주지로 부임했던 원진국사(圓眞國師)에 대해 언급한 내용중에 “일찌기 보경사(寶鏡寺) 아래 동구에 있는 광흥사(廣興寺)에 우거하면서 항상 보경사 고법당(古法堂)의 금불삼존(金佛三尊)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하러 다녔다.”라는 내용이 보인다.⁸⁾ 이로 보아 원진국사가 절의 주지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삼존불상이 안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⁹⁾ 아울러 당시 꽤 유명한 불상이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상의 하한연대도 원진국사가 주지로 부임한 1215년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금불삼존(金佛三尊)과 창건 당시 조성되었던 불상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적광전(寂光殿)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 삼존불상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매우 주목된다. 그러한 가능성으로써 첫째 이 3 불상이 모두 같은 금당(金堂)(현재의 적광전(寂光殿))에 모셔졌던 상(像)이라는 점, 둘째 이 금당(金堂)이 강희(康熙) 16년(1677) 중창되었을 뿐 파괴 혹은 화재로 인한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 셋째 현재 남아있는 비로자나삼존불상이 고식(古式)이 현저한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의 도상적 전통을 간직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3점의 불상이 모두 같은 상(像)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경사 창건시기를 규명함은 비로자나 삼존불상의 조성연대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경사 창건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확한 사료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조선시대의 문헌 가운데는 보경사에 관하여 몇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1484년 초간본이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청하현산천조(淸河縣山川條)」에 “新羅 眞平王이 甄萱의 亂을 이 內迎山에서 피했다.”라 하여 보경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전해준다.¹⁰⁾ 이 기록에 보이는 두 인물의 시기적인 격차가 극심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나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보다는 비교적 내란(內亂)이 적었던 진평왕(眞平王)은 오기(誤記)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¹¹⁾ 이 시기에 대한 『신증동국

7) 註 16) 참조

8) 金佛三尊에 對해서는 “~ 逮麗中葉 王師 圓眞國師 避尊榮國棟 來遯於洞外廣興寺 常承-匹青驢 晨昏上下於古法堂 金佛三尊之下 禮拜承事 雖雨雲 不廢 非念道之勤~” 『朝鮮寺刹史料』 上 (高麗書林, 1986) p. 376

이상의 기록에서는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塑金色”이라 한 佛恩寺 불상의 경우처럼 塑造像에 金을 입히는 것은 당시의 통례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金佛三尊이라는 앞의 기록은 단순히 외견상의 특징만을 언급한 것 같다. 『塑金色丈六並二菩薩 高麗國天台佛恩寺重興記』, 『稼亭集』 卷3

9) 원진국사 승형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碑文에 쓰여진 기록에 의해 그의 생애나 사상적 배경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비문에 의하면 원진국사는 楞嚴經에 열중했던 曠陽山派 禪宗승려로서 유점사 주지를 거쳐 1215년 보경사주지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13세기 이후 보경사가 禪宗사찰로서 유점사와 대등하게 배려된 중요사원이었음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후 迦智山門의 見明(1206~1289)의 門人등에서도 이 절의 주지를 역임하였던 사실로 볼 때 적어도 고려후기에는 선종사찰로서의 성격이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진국사에 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許興植, 「禪宗의 復興과 看話禪의 展開」, 『高麗佛教史研究』, (-潮閣, 1986) pp. 475~476 및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앞의 책』 p. 254 참조

10) 新羅眞平王避甄萱亂于比山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은 후대의 사찰 기록에 자주 인용되고 있어 절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사료로 취급되어 왔다. 즉 1588년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찬(惟政撰) 『금당탑기(金堂塔記)』에는 “신라 진평왕이 甄萱의 亂을 여기에서 피하였기 때문에 內迎이라 하였다.”라 하여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¹²⁾ 또 1767~1768년 사이에 이격(李激)이 편찬한 『경상도 읍지(慶尙道 邑誌)』 청하현(淸河縣)편에서도 보경사의 소개에 이 『금당탑기(金堂塔記)』를 전재(轉載)하고 있다.¹³⁾ 그러나 앞서 언급한 1792년 『보경사 사적기(寶鏡寺事蹟記)』에서는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치세에 건립되었다 하여 처음으로 보경사의 창건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나¹⁴⁾ 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그 시기조차 조작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보경사 창건시기는 실제로 언제쯤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먼저 『보경사 사적기(寶鏡寺事蹟記)』에 보이는 창건 설화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주 인용되었던 진평왕과 견훤의 관계도 창건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견훤이 활약했던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정치상황 및 시대적 배경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경사 창건 설화에 대해 『보경사 사적기(寶鏡寺事蹟記)』에는

“~듣자니 불법이 동방으로 울적에 經·像외에 또한 二寶經을 신고 왔으니 -은 十二面이니 중국 白馬寺 밑에 묻어 저 十二部界를 진정하고 -은 八面이니 이 終南山 아래에 묻어 八城의 基運을 定杼하였다 하니 절을 寶鏡이라 일컬음은 이 뜻을 취한 듯 하도다. 鏡을 묻고 절을 세운 것은 第七葉 眞平王 때에 백척의 깊은 못을 매우고 鏡을 그 가운데 두고 法堂을 세우고 佛像을 안치하니 오늘의 金堂이 그것이다. 사람들의 말하기를 新羅朝의 君臣의 名을 金堂壁 위에 열기하였더니 뒤에 改椽할 적에 없어졌다 하니~¹⁵⁾

라고 하여 중국(中國)에 전해 내려오는 불교전래(佛敎傳來) 기록과 자장(慈藏)과 의상(義相)이 중국 유학시 머물렀던 종남산(終南山) 등을 연결하여 그 이전 고대(古代)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신앙의 정통성(正統性)을 주장하고 있다. 종남산(終南山)이 알려진 시기는 자장과 의상이 유학한 이후인 7세기 중엽경 이후나 가능했을 것이다.¹⁶⁾ 금당(金堂) 밑에 묻었던 팔면경(八面鏡)은 관련이 없는 생활용구(生活用具)로써 매우 독특

11) 진평왕과 견훤에 관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은 분명 어느 한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두 인물의 활동시기에 일어난 크고 작은 亂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진평왕 시기의 亂을 『三國史記』 二六 眞平王條에서 확인하면 백제가 침입한 것은 602년~628년에 걸쳐 7회나 되며 고구려의 침입도 2회 등 잦은 편이지만 대체로 영토의 서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져 왕이 위협에 직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후삼국시대에 견훤에 의한 경주 근교의 전투는 인접한 永川, 淸道, 安東 등 경상도 지역내 신라와 후백제 사이의 치열한 전쟁으로 신라왕이 견훤에 의해 살해당하기 까지 하는 등 수도 경주는 매우 위태로웠다. 그러므로 앞의 기록중 진평왕의 오기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12) 『淸河郡 內延山 寶鏡寺 金堂塔記』, 『朝鮮寺刹史料』 pp.336~370

13) 『邑誌-慶尙道』(亞細亞文化社, 1982) 第20冊 淸河縣

14) 註 16) 참조

15) ~曾聞佛法 東來日 馱經像外 且裁 二寶鏡 一則二面 埋於中華白馬寺 鎮彼

十二部界 一則八面 埋此終南山下 定吾八城之基運 寺稱寶鏡者 應取也 則其所稱者 豈偶然哉 非但如此 西來之法 與鏡爭明 肇自新羅第七葉眞平王之世 填百尺深潭 置鏡其中 建法堂安佛像 今之金堂 是也 人稱新羅朝 君臣之名 宛在壁面之上 如昨日云云 而及後改椽之時 爲工人之不慎 朱其古迹 良可惜也~ 비슷한 창건 설화 내용이 『金堂塔記』에도 전한다.

16) 『金堂塔記』에 의하면 내영산의 원래 이름은 終南山인데 진평왕이 견훤의 亂을 피했으므로 內迎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데 불교신앙과 鏡이 접합된 거의 유일한 설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경(鏡)의 유행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어 공장(工匠) 가운데 경장(鏡匠)을 따로 두기도 하였으며 팔면경(八面鏡) 또한 팔화형(八花形), 팔능형(八稜形), 팔각형(八角形)의 형태로 이때 성행된 기물의 일종으로 참고가 된다.¹⁷⁾ 이외에도 경(鏡)과 관련된 설화의 예는 적은 편이나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에는 왕건(王健)의 일면고적참(一面古鏡讖)이 민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사실도 보경사 팔면경(八面鏡) 설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⁸⁾

한편 후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신라말기(新羅末期)의 정세는 왕(王)들의 방탕과 부적절한 왕위(王位)계승 또는 견훤에 의해 王이 살해당하거나 추대되는 등 왕권(王權)이 실추되었던 시기이다. 더욱이 신라내의 군소세력의 난립으로 왕건(王建)에 내항(來抗)하거나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등 왕위(王位)에 도전하고 반항(反抗)하는 세력이 증대됨에 따라 자연히 왕권에 대한 신비감은 크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⁹⁾ 고려초기인 937년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신라 왕권의 정통적(正統的)인 계승자임을 인정받고자 신라삼보(新羅三寶)(황룡사(黃龍寺) 장육금상(丈六金像), 구층탑(九層塔), 옥대(玉帶)) 중 진평왕의 요대였던 성제대(聖帝帶)를 취하려 하였으며 자신의 시조(始祖)를 성골(聖骨)장군이라 하였다 한다.²⁰⁾ 즉 이 내용은 고려초 소외당하였던 신라인의 자긍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앞의 사적기에 언급된 진평왕(眞平王)이란 단순히 신라왕(新羅王)을 칭하였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경사의 창건 설화 내용이나 관련 기록 등에는 오히려 고려적인 성격이 농후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보경사가 고려조에 이르러 건립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금당벽(金堂壁)에 신라조(新羅朝)의 군신(君臣)의 성명을 적는 등 다분히 신라인의 한(恨)을 내비치는 점도 더욱 그러하게 느껴지며 더불어 그 창건시기가 신라가 망한 935년에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론(推論)이 타당하다면, 창건시 조성된 불상은 현재의 금당(金堂)(적광전(寂光殿))에 봉안되어있는 비로자나 삼존불일 것으로 이 점은 양식 파악을 편년추정에서도 확인하다. 즉 신라(新羅)의 조각(彫刻) 전통(傳統)을 계승 발전시킨 복고적(復古的) 상(像)으로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慶州)와는 단지 40여리 떨어진 인접한 지역으로 그 영향이 크게 느껴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²¹⁾, 조성시기도 대체로 10세기 경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식 고찰 및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밖에도 조성배경(造成背景)으로서 청하현(淸河縣)과 관련된 인물(人物)은 극히 적은

17) 李蘭暎,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1992), pp. 155~171

18) 『高麗史』, 太祖世家 및 李丙燾, 『高麗時代の 研究-특히 圖織思想의 發展을 中心으로-』 (亞細亞文化社 1980), pp. 37~39

19) 太祖 8年 永川 (당시 高鬱部) 將軍 能文이 士卒을 거느리고 태조 王建에게 內抗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신라왕도에 너무 접근한 이유로 신라왕의 감정을 상할까 하여 돌려보냈다 한다. 그리고 경상도 지방의 眞寶城主 洪術도 太祖 5年 항복했으며, 載岩城 將軍 善彌은 太祖 13年 歸附하였다. 李丙燾, 『韓國史, 中世編』, (乙酉文化社, 1961) pp. 40~41 및 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 將軍-眞寶城主 洪術과 載岩城, 將軍 善彌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9,(1981. 12), pp. 53~71 참조

20) 聖帝帶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古跡條에 자세한 내용이 전한다. 이에 의하면 眞平王 元年 한 神人이 궁전의 뜰에 내려와 上帝의 명령으로 眞平王에게 玉帶를 전했다는 영험한 물건으로 진평왕이 聖骨의 王이라 聖帝帶라 불리었다고 한다. 그후 신라말 敬順王이 고려에 항복한 뒤 太祖 왕건의 요구로 바쳐졌다. 따라서 성제대는 신라왕의 상징으로 신라 전통의 계승자로서 자처했던 왕건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본다.

21) 丁時翰의 『山中日記』 下 (延世大學校, 1968), pp. 40~42에 보경사 근처 松羅驛에서 40여리 떨어진 경주로 갔음을 적고 있다. 이밖에도 1688년 보경사에 처음 당도했을 때 天王門을 짓고 있었다 하여 현재 남아있는 天王門의 조성시기도 알려준다. 그리고 보경사 근처에 있는 암자인 文殊菴, 普賢菴, 寂滅菴, 大悲庵, 繼祖庵 등을 돌아 내영산 폭포 등을 기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이나 미약하나마 경주최씨(慶州崔氏)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먼저 988年 청하후(清河侯)로 봉해진 최승로(崔承老)(927~989)가 있으며 최항(崔沆)(972~1061)은 청하현개국자(清河縣開國子)로서 식읍(食邑) 500號를 하사받았다 한다.²²⁾ 특히 최항(崔沆)의 가계(家系)는 선조(先祖)때부터 대대로 높은 불심(佛心)을 표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선조(先祖)인 신라(新羅) 대부각간(大夫角干) 최유덕(崔有德)은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유덕사(有德寺)라는 절을 지었고²³⁾, 조부(祖父) 최언위(崔彦擣)(868~944)는 오룡사(五龍寺) 법경대사(法鏡大師)(871~921) 보조혜광탑비(普昭慧光塔碑) 재학제자(在學弟子) 명단에 들어있으며²⁴⁾, 최언위의 子 최행귀(崔行歸)는 균여(均如)와 도우(道友) 사이였다 한다.²⁵⁾ 최언위의 손자로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를 지낸 최항(崔沆) 또한 불교(佛敎)를 흑신(酷信)하여 마치 승거(僧居)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았으며 팔관회(八關會)의 부흥과 황룡사탑(黃龍寺塔) 수축시(修築時) 감독까지 하였음이 『고려사(高麗史)』 卷93, 최항전(崔沆傳)에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다.²⁶⁾ 이상의 내용만으로 보경사와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정치(政治)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막강한 출신의 가문이 경주(慶州)에 적(籍)을 둔 신라 출신인 점 그리고 불교와의 진한 유대감이나 고려초기 청하현(清河縣)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경사 창건과의 관련 가능성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본다.

III.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의 양식고찰(樣式考察)

이 삼존불상(三尊佛像)은 지권인(智拳印)을 짓고 있는 가부좌(跏趺坐)의 비로자나불좌상(毘盧遮那佛坐像)과 입상(立像)의 양협시보살(兩脇侍菩薩像)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살상은 들고 있는 지물(持物)이나 상징물이 없어 확실한 명칭은 알 수 없으나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인 문수(文殊)와 보현(普賢)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말기(統一新羅末期)의 비로자나삼존불상의 예로서는 비록 많이 파손되었으나 각기 사자와 코끼리를 탄 법수사(法水寺) 비로자나삼존불상(毘盧遮那三尊佛像)²⁷⁾과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庵)의 삼층석탑에서 나온 863年 명(銘)의 금동사리함 상자의 한면에 새겨진 선각비로자나삼존불상(線刻毘盧遮那三尊佛像)처럼 지물(持物)이 없이 합장한 보살입상(菩薩立像)이 전할 뿐이다.²⁸⁾ (사진 25) 고려초기의 상으로 남아 있는 예는 거의 없으나 988~997年 사이에 왕륜사(王輪寺)에 조성되었다는 장육비로자나삼존불상(丈六毘盧遮那三尊佛像)에 대한 문헌 기록이나²⁹⁾ 보경사 상 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로 추측되는 영탑사(靈塔寺)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金銅毘盧遮那三尊佛像)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유행되었을 형식(形式)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9)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人物條

23) 『三國遺事』 卷3, 有德寺

24) 李鍾旭,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 繼承戰과 그 政治의 性格」, 『高麗 光宗 研究』, 一潮閣, 1981) pp. 9~16

25) 崔行歸는 崔彦擣의 아들로 중국에 유학하여 귀국한 후 光宗의 倖臣이 되었다. 光宗18년에는 均如의 「善賢十願歌」를 漢譯하는 등 均如와는 매우 가까운 인물이었다 한다.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앞의 책』, 一潮閣, 1981), p. 104

26) 이외에도 오늘날 전하는 太祖의 訓要十條는 崔齊顔이 崔沆의 집에서 얻어 진헌한 것이라 한다. 훈요10조의 진위성 여부는 조치하더라도 궁중전래의 信書를 개인이 소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최항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李丙燾, 『앞의 책』, pp. 55~74

27) 文明大, 「法水寺 摩阿毘盧遮那三尊佛」, 『古文化』 5, 6 合輯, (1969, 5), pp. 38~44

28)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집, (1969, 7), pp. 53~86

29) 李圭報,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 『東文選』 卷 67.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비로자나불상으로 삼존(三尊)이 구비된 실물대 크기의 상으로서 이 보경사 삼존불상이 거의 유일한 예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현재 이 삼존불상은 1977年 거행된 개혁불사(改金佛事)로 금칠이 두텁게 입혀지고 눈·코·입 등도 다시 그려져 본래의 모습은 다소 잃었으나 보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1) 불상(佛像)

본존불상은 머리위에서 양 무릎으로 이어지는 정삼각형의 안정감 있는 구도와 실제 크기에서 오는 당당함, 그리고 무릎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거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옷주름 등 입체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사진 1) 얼굴과 몸체의 비례는 거의 1 : 4를 이루어 안면이 비교적 큰 편인데 예배자가 볼 수 있는 낮은 위치에서의 시각적인 비례 감각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좁은 어깨가 곡선을 그리며 쳐져 있고 적게 파여진 가슴 전면으로 지권인을 한 손이 가리고 있는 탓인지 상체부분이 다소 위축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얼굴은 자비로움을 자아내는 둥글고 원만한 모습이다. 이러한 인상은 턱 밑 하부골(下部骨)이나 반초골(飯超骨) 부위를 윤곽없이 부드럽게 처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전대(前代)의 불상들이 대체로 각이 진 네모꼴의 얼굴이나 인중와 하부골을 W형으로 돌출시킴으로써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표현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점은 좀더 접근하기 쉽도록 친근감을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인 듯 하며 이러한 경향은 뒤에서 살펴 볼 보살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머리는 반듯한 이마와 나발(螺髮) 그리고 둥근 육계(肉髻)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꼭대기를 후보(後補)인 듯한 둥근 계주(髻珠)로 장식하였다. 삼도(三道)가 없는 목은 전체적인 비례에서 볼 때 짧은 편이다. 귀는 일반적인 형상과는 달리 길게 늘어져 있진 않으나 중간에서 한번 휘면서 컷볼이 도톰하게 표현되어 있다. 두 손은 오른쪽 들췌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과는 반대의 지권인(智拳印)으로 배 부분위에 낮게 놓여져 있다.

두꺼운 통견(通肩)의 법의(法衣)는 양쪽 어깨 부분의 주름 모양과 굽기를 달리하거나 옷깃을 변화있게 나타내는 등 장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왼쪽 어깨는 옷깃모양의 넓은 삼각형 띠주름을 형성한 반면 오른쪽은 가는 띠주름이 한번 뒤집어져 살짝 접히면서 흘러내려 오다가 가슴밑에서 다시 90도의 곡선을 그리며 늘어져 옷 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옷주름들은 신체의 볼륨을 나타내면서 굴곡지게 표현되었으며 부위에 따라 얇게 파거나 양각의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특히 천이 접혀지는 팔과 팔꿈치 부분의 주름을 더욱 돌출되게 나타내거나 왼쪽 가슴에는 균일하게 파인 촘촘한 옷주름선들이 예리한 반면 법의의 오른쪽 깃부분에는 긴 직사각형의 면을 부조로 처리한 점 그리고 허리밑으로 늘어지게 처리한 점에서 더욱 법의의 양감을 느끼게 한다.(사진 2) 하체(下體)의 세부 묘사에서도 불신(佛身)과 법의(法衣)의 양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무릎 부분에는 주름을 생략함으로써 입체감을 증진시키고 발목 부근에는 일정한 간격의 굽은 수직 주름들이 높이에 차이를 두면서 가해져 있다. 이와 같이 옷주름의 표현 기법을 매우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옷의 부피감과 신체의 굴곡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상(佛像)의 형식(形式)이나 양식적 특징들은 외견상 통일신라에 유행한

불좌상(佛坐像) 형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766년의 사리기가 출토된 석남사(石南寺)(현재 내원사(內院寺)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과 비교하면 좁은 어깨에 넓은 무릎으로 안정감 있는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점이나 배 앞으로 낮게 놓여 있는 손 모습 등이 흡사하다.³⁰⁾(사진3) 대체로 이 시기 이후의 비로자나불상들이 가슴 위쪽으로 손을 높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던데 비해 이 석남사 상과 보경사의 비로자나불상은 매우 이례적인 형식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두 예이다. 또한 양 어깨로 내려오는 넓이가 다른 띠주름의 양태 등도 두 상이 서로 비슷하다. 이러한 특징은 863년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庵)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사진 4)을 비롯하여 증심사(證心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遮那佛坐像)(사진 5)이나 운문사(雲門寺)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사진 6) 같은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8세기부터 10세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유행되었던 특징이다. 이들 상들은 그 세부 묘사에 차이를 보이는데 석남사 불상의 경우 가슴 앞으로 둥글게 원을 이루면서 왼쪽 어깨 부위에만 5~6개의 주름이 흐르듯 새겨져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동화사나 증심사 불상은 어깨 위에서 밑으로 3~4개의 끝은 주름이 사선으로 규칙적으로 내려오며, 보경사나 운문사 불상과 같은 고려시대의 상에서는 단순한 옷깃식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표현이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그 기본 형식만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불국사(佛國寺) 금동비로자나불좌상(金銅毘盧遮那佛坐像)도 상호 비교가 잘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³¹⁾(사진 7) 왼손이 오른손의 검지를 잡은 지권인의 손 모습이나 둥근 양감이 강조된 무릎 그리고 발목위에 접혀져 내려오는 주름을 몇 가닥의 선 만으로 간략하게 처리한 점 등이 서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법적으로 불국사 상은 가는 도들선(凸)의 사용으로 신체의 양감이 더 강하게 표출된 반면 보경사 상은 간격이 일정한 옷단 사이 사이를 깊게 팸으로써 상대적으로 양감은 감소된 느낌을 주나 그 대신 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권인의 손의 위치가 반대되는 것은 그 예가 흔하진 않으나 앞서 언급한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9세기의 홍천(洪川) 물걸리(物傑里)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사진 8) 그리고 고려 전기에 속하는 영탑사(靈塔寺)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金銅毘盧遮那三尊佛像) 등 일부 경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사진 9)

이외에 오른쪽 어깨위에서 가슴밑으로 내려오는 띠주름이 한번 접혀지는 표현은 859년 보림사(寶林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遮那佛坐像)이나 (사진 10)이 보다 이른 시기의 청암사(靑岩寺) 수도암(修道庵)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과 같이 (사진 11) 가슴 밑이나 법의 바깥에서 반대로 접혀지는 외견상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양태에서는 상통된다.

보경사 본존불의 법의 표현 중 오른쪽 배 밑으로 둥글게 올려져 허리춤에 그 끝이 들어가는 착의법은 나말여초(羅末麗初) 또는 좀더 좁혀보면 9세기경 전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양식적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기의 금동불입상(金銅佛立像)들이나³²⁾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상으로 보이는 청풍(淸風) 석조여래입상(石

30) 石南寺 불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朴敬源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坐像」, 『考古美術』 168호 1985. 12, pp. 1~21; 姜友邦, 「韓國毘盧遮那佛의 成立과 展開」, 『美術資料』 44, (1989. 12), pp. 1~66. (같은 내용이 同著, 『圓融과 調和』, pp. 427~479); 文明大, 「智拳印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毘盧遮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 (1992), pp. 55~89

31)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8세기 후반과 崔致達 讚文에 기록된 887년이라는 두가지 설이 있다. 金元龍, 『韓國 古美術의 理解』(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 79 및 姜友邦, 『앞의 책』, pp.468~469, 文明大, 「佛國寺 金銅如來坐像 二軀와 그 彫像讚文(碑銘)의 研究」, 『美術資料』 19, (1976, 12) pp. 1~16

造如來立像)(사진 12) 등과 비교가 잘 된다. 이 불상들은 대체로 통견(通肩)의 법의(法衣)가 선각 혹은 양각의 기법으로 좌우로 등글게 늘어져 대칭을 이루거나 왼쪽 한군데만 늘어진 주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보경사의 본존상과 같이 오른쪽에만 늘어져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불상중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아마도 지권인의 자세 때문인 듯하다.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보경사 상은 거의 90도의 곡선으로 휘어져 탄력감이 느껴지나 청풍 불상이나 다른 신라말기의 예들에서는 형식적으로 표시만 하거나 길게 축 늘어뜨려 번잡스러운 느낌마저 주고 있다.

시기적으로 고려초기의 불상중에는 보경사 본존불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통견(通肩)의 법의에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좌상 형식은 통일신라말기의 전통을 이어 계속 조성되어 계단식의 편평한 옷주름이나 양감이 줄어든 신체 등 형식화된 작품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 보경사 상의 옷주름에서 느껴지는 정돈되면서도 장식성이 가미된 수법은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원주(原州) 전래 석조 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坐像)과 같이 선의 울동적인 흐름을 통해 나타내는 효과와 일맥 상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³³⁾ 또한 상 전체에 수직적이고 직각적인 선을 절제하고 사선과 곡선 위주의 선각을 선호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럽고 온화한 인간적인 분위기 표출은 경북(慶北) 예천(禮泉) 청룡사(靑龍寺)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나(사진 13), 청도(淸道) 운문사(雲門寺)에 있는 석조불좌상(石造佛坐像) 등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고려적인 미감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한다.(사진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경사 본존불에 보이는 조각 양식은 8~9세기 통일신라 조각의 전형적인 요소 및 이를 변형시킨 특징 그리고 10세기 불상과도 연관되는 조형 감각이 종합되어 표현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성 표출과 긴장감 넘치는 선의 정교한 묘사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등글게 쳐진 어깨라든지 움추러든 자세에서는 불신의 크기에 비해 다소 이완된데서 오는 부드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즉 8세기의 조각에서 추구하던 사실적인 옷주름과 양감있는 신체의 표현, 그리고 9세기 조각 특유의 장식적인 효과 등을 융합하고자 시도했던 고려초기의 복고적 성향의 불상이라 할 수 있겠다.

2) 보살상(菩薩像)

이 삼존불상의 좌우 협시를 이루고 있는 두 보살상은 본존을 향해 삼곡(三曲) 자세를 취하여 대칭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부처로서의 엄숙함을 갖춘 본존불과는 달리 작고 가름한 얼굴에 8등신의 가늘고 긴 신체, 배를 내민 잘룩한 허리 그리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천의(天衣) 자락 등이 어우러져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오른쪽 보살상을 보면, 계란형의 둥근 얼굴에 유난히 코가 큰 듯하나 입술의 한쪽 끝을 살짝 올림으로써 미소가 스민 따듯한 표정을 지어내고 있다.³⁴⁾(사진 14) 머리는 이

32) 松原三郎, 『韓國金銅佛研究』(吉川弘文館 1985), 도판 142.c, 166.b, 167.a.b 172 b.c 참조 이외에도 楡岾寺에 전해 내려왔으나 현재는 없어진 48體佛 가운데에도 이러한 형식의 예가 다수 보인다. 『朝鮮古蹟圖譜』 7, (1930) 도판 一九五一, 一九五二

33) 金理那, 「앞의 논문」, 『考古美術』 166, 167합집, (1985, 9), 도판 2참조

34) 현재 이 삼존불상이 있는 적광전내의 불단이 높아서 양보살을 하나의 껍으로 담기 어려워 부득이 2부분으로 나누어 있게 되었다

마 위로 앞 머리카락이 선각되어 있을 뿐 다른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다. 그러나 보계(寶髻)에는 사선으로 음각된 머리카락이 새겨져 따로 보관(寶冠)을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보계(寶髻)는 매우 높고 큰데 양 옆머리를 둥글게 말아 넣은 형태로 고려초기 10세기 전반기로 추정되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상(石造菩薩像)과 매우 유사하다.(사진 15)

벗은 상체 위로 두꺼운 천의가 양어깨를 덮으면서 내려와 한쪽 끝은 무릎에서 U형을 이루면서 다시 팔에 걸쳐져 대좌밑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또 다른 한가닥의 천의는 왼쪽어깨에서 가슴위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모습으로 중국(中國) 당(唐)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 이래의 일반적인 착의법을 따른 듯하다. 그런데 그 끝자락이 가슴 오른쪽에서 천의 바깥부분으로 둥글게 늘어지면서 안쪽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늘어뜨려져 있다. 상의 뒷면에도 같은 형태의 끝자락과 U형의 천의가 앞면보다는 비교적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다.(사진 17) 이와 같은 양보살상의 천의 표현을 상이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고려초기의 3존불상가운데 940년 작(作)으로 추정되는 개태사(開泰寺)의 양협시보살상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 18) 즉 오른쪽 협시보살상은 어깨위에서 밑으로 천의 끝자락이 도식화된 형태로 내려오며 왼쪽보살상은 가슴 중앙에서 천의(天衣) 위로 둥글게 늘어지는 등 양보살상이 각기 다른 천의(天衣) 형태로 표현되어진 점에서 부분적인 상통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그재그의 모습으로 도안화된 천의 자락은 고려초기 한송사지보살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다.(사진 15) 이상의 두가지 천의 형식은 통일신라후기의 보살상들 중 현재는 없어졌으나 유점사(楡岾寺)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이나(사진 19),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소장 (구 오영신(吳榮信) 소장)의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등에서 그 예(例)를 발견할 수 있다.³⁵⁾(사진 20) 따라서 8세기 후반 경부터는 이러한 두가지 착의법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천의(天衣)의 세부 묘사 가운데 양어깨 밑에서 삼각형으로 곡선지게 처리된 모습도 매우 특이한데 이와 비슷한 예는 8세기 중엽의 석굴암(石窟庵)내에 사면관(斜面觀)의 부조(浮彫)로 조각된 보현보살입상(普賢菩薩立像)(사진 21)에서도 이미 발견된다.

상의(裳衣)는 배밑에서 매듭띠로 묶고 그 윗자락을 밖으로 낸 마치 짧은 치마 같은 형태로 좌우 주름을 잡았는데 한쪽을 바람에 날리듯 외반되게 처리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세련된 조각기술을 보여준다. 상의(裳衣)의 일부는 양 무릎 밑에서 각기 도드라진 U형(形)의 주름을 지으며 발목까지 내려와 있다. 이와 같은 상의(裳衣) 표현형식은 719년 감산사(甘山寺) 석조미륵보살입상(石造彌勒菩薩立像)(사진 22)이나 8세기 전반경의 칠불암(七佛庵) 협시보살입상(脇侍菩薩立像)과 같이 8세기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사진 23)

중국(中國)의 북송초기(北宋初期)의 작품(作品)가운데 목조관음보살입상(木造觀音菩薩立像)과 같이 짧은 치마에 양옆을 대칭적으로 주름을 잡은 상의 형식이나 가슴밑으로 길게 내려트려진 천의(天衣)의 자락 등은 보경사 보살상과도 비슷하게 느껴진다.³⁶⁾ 그

35) 일본 天平시대의 보살상들 가운데도 이러한 예가 적지않은 편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日光菩薩像이나 大安寺 觀音菩薩像 그리고 奈良 唐招提寺 講堂内の 木造菩薩立像들이 있다. 이들 상들은 天平後期인 8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당시 유행한 국제적 양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杉山二郎, 『天平彫刻-日本の美術』 15號, (經文堂, 1967), 도판 132, 165,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教彫刻樣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도판 3-39, p. 193, pp. 232~237 참조

36) 松原三郎, 「앞논문」, 『國華』 通卷 833號, (1961) 사진 16, 이러한 타일의 北宋代의 木造菩薩像들은 그 예는 많지만 조성연대나 지역이 밝혀진 작품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편이어서 고려초기 불교조각과의 연관성 및 유입 시기 등을 해석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松原三郎氏의 논문에 의하면

러나 앞서 언급한 통일신라 8~9세기의 조각에서 이미 유행한 양식임을 고려해 볼 때 외래적인 영향보다는 전통적인 요소의 계승으로 보고싶다.

수인(手印)의 경우 오른손은 가슴위에 들고 왼손은 밑으로 내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었는데 구부린 손가락의 표정이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곡선적으로 유려하게 처리된 불신(佛身)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자세는 기본적인 직립으로 본존을 향해 몸을 틀면서 잘룩한 허리에 배를 내밀고 왼쪽 무릎을 살짝 굽힌 삼곡(三曲)의 곡선적인 자세가 울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왼쪽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은 오른쪽 보살상(菩薩像)과 완전 좌우 대칭을 이루며 거의 똑같은 형식(形式)과 양식(樣式)을 보여주는데 앞서 앞가슴에 처리된 천의(天衣)의 끝자락이 직선으로 길게 내려온 점과 상의(裳衣)의 매듭띠를 짧게 처리한 미세한 차이만이 감지된다. 오히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대칭의 단순해지기 쉬운 상(像) 전체에 생동감마저 느껴져 동적(動的)인 분위기로 이끌어준다.

이와 같은 삼곡(三曲)자세의 양협시보살상(兩脇侍菩薩像)과 경직되고 엄숙한 분위기의 본존불(本尊佛)로 구성된 삼존불(三尊佛) 형식(形式)의 시원은 7세기말 경주 안압지(雁鴨池) 출토(出土) 금동삼존불좌상(金銅三尊板佛坐像)으로 거슬러 올라가며(사진 24) 8세기 전반의 경주 남산의 칠불암(七佛庵)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이나(사진 23) 863년명(銘) 사리함에 새겨진 동화사(桐華寺) 금동선각삼존상(金銅線刻三尊像)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5)

전체적으로 보경사(寶鏡寺) 양협시보살상(兩脇侍菩薩像)은 8~9세기에 형성된 통일신라 양식의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조각으로서 삼존불(三尊佛)의 형식(形式)이나 착의법(着衣法) 그리고 자세나 신체 비례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원형의 가름한 얼굴이나 이목구비의 표현 그리고 둥글게 내려오는 어깨 등에서는 탄력감이나 긴장감이 사라져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 보경사 보살상과 비교되는 고려초기의 보살상의 예(例)로서 앞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石造菩薩坐像)과도 떠같은 형태에 작고 둥근 장식이 달린 목걸이의 표현이라든지 비록 부분적 파손으로 확실하진 않으나 가슴 위에 내려트려진 천의(天衣) 모습이 보경사 왼쪽 보살상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진다. (사진 26) 또한 보경사(寶鏡寺) 보살상(菩薩像)의 특징인 좁고 둥근 어깨와 잘룩한 허리 그리고 왼쪽 가슴에서 대각선으로 걸쳐지면서 그 끝자락이 수직으로 길게 늘어진 천의(天衣) 등은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동조보살상(銅造菩薩像)(사진 27)이나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 박물관(博物館) 소장 금동보살좌상(金銅菩薩坐像)(사진 28)과 비교된다. 특히 동조보살상(銅造菩薩像)의 팔찌에는 측면으로 한가닥의 가늘고 둥근 수식이 달려있는데 보경사 보살상에서도 이보다 굵은 유사한 둥근 줄무늬의 수식이 있다.

이외에도 얼굴 모습은 관야정(關野貞) 소장 동조보살상(銅造菩薩像)(사진 29)과 여성

이러한 유형의 목조보살상들은 양식적으로 唐時代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강북지역 상들로 추정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써 山西省에서 제작된 金이나 元代의 목조보살상의 양식적 시원이 북송대의 보살상에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고려와 宋사이의 교류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초기부터 文宗代까지는 주로 山東省 登州가 항로의 중심 奇航地였으며 太祖 17年 7月과 10월에 고려인이 登州에 와서 交易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에 전래된 宋代 불상은 주로 강북지역의 상들이 많았을 것으로 앞서 언급한 유형의 보살상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松原三郎, 「앞논문」, pp. 342~355, 고려와 송사이의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5) pp. 151~163;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初期의 對中繪畫交涉」, 『亞細亞學譜』, 第13輯, (1979. 11) p. 44; 李基白, 「高麗初期 五代와의 關係」,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pp. 139~140

적인 부드러운 안면(顔面) 표현(表現)이나 곡선적인 우아한 조형성(造形性) 등 기본적인 감각에서 유사함이 발견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경사 비로자나삼존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 및 도상적 조각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면서도 고려초기에 보이는 조형 감각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실적인 표현에 충실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잃지 않음으로써 예배상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완숙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대략 고려초 10세기경으로 추측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보경사(寶鏡寺)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과 관련된 문헌기록 등을 통해 조성시기를 추정해보고 이어서 양식적 특징도 대충 밝혀보았다.

먼저 보경사 창건에 대하여 1972년 당시 주지 동봉화상(東峰和尚)이 쓴 『보경사사적기(寶鏡寺 事蹟記)』의 신라 진평왕(眞平王) 설(說)은 후대에 조작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창건설화(創建說話)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진평왕(眞平王)과 견훤(甄萱)과의 관계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하여 진평왕대(眞平王代)가 아닌 고려초기 10세기경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미약하나마 고려초기 경주최씨(慶州崔氏)와의 관계도 조성배경(造成背景)으로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 부족으로 관련성의 가능성만을 지적하는데 그쳤다.

또한 창건 당시 금당(金堂)에 조성되었던 불상(佛像)과 13세기 초 원진국사(圓眞國師)가 예배하러 다녔다는 금당(金堂)의 금불삼존(金佛三尊)은 동일상(同一像)일 것으로 보고 현재 적광전(寂光殿)에 봉안되어 있는 이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이 바로 기록에 보이는 상(像)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보경사 비로자나삼존불상을 창건 당시 조성된 고려초기 10세기의 작품으로 볼 때에 상(像) 표현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도 위에 추정한 10세기의 편년과 부합된다. 즉 통일신라 8~9세기 불교조각과의 비교를 통하여 볼 때 3존불의 형식 및 양식은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제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된 복고적인 성향을 띤 불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본존불의 경우 766년의 사리기가 출토된 석남사(石南寺)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나 불국사(佛國寺) 금동비로자나불좌상(金銅毘盧遮那佛坐像)의 도상 및 양식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점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불상양식이 도식화되고 형식화가 진행되면서도 사실적인 세부 묘사와 양감이 강조되는 8세기의 조각전통의 맥이 계속 고려초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일신라 전성기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당당함이나 탄력은 감소된 반면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점은 소조(塑造)라는 재료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불상보다는 보살상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 생략된 장신구의 표현이나 신체구조와 천의의 유기적인 조화 그리고 가늘고 긴 신체에 곡선적으로 몸을 튼 삼곡(三曲)의 자세와 가름한 계란형의 얼굴 등이 어우러져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드럽고 곡선적인 조형감각은 강원도 명주지방의 한송사지 보살상들에서도 보이는 고려초기 10세기의 불교조각이 지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역시 10세기의 작품인 충남 연산의 개태사 삼존불상의 협시보살상들은 그 표현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보경사 보살상과의 두드러진 양식적 연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만 양협시 보살상의 가슴에 대각선으로 늘어트려진 천의(天衣)의 끝자락이 각기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에서는 미약하나마 부분적인 상통함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고려초기 10세기의 불교조각은 시대적인 커다란 흐름 속에서 각각의 지역적인 독자성을 창출하면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구신라지역에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향을 띤 불상 표현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불좌상중(塑造毘盧遮那佛坐像中) 본존불상(本尊佛像), 고려초기(高麗初期), 불상높이 138cm,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사진 1.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불좌상중(塑造毘盧遮那佛坐像中) 본존불상(本尊佛像), 고려초기(高麗初期), 불상높이 138cm,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사진 2. 본존불상(本尊佛像)의 측면

사진 2. 본존불상(本尊佛像)의 측면



사진 3. 石南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766年, 높이 102.2cm,
慶南 山淸郡 三壯面 內源里 內源寺

사진 3. 석남사(石南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766년, 높이 102.2cm, 경남(慶南) 산청군(山淸郡) 삼장면(三壯面) 내원리(內源里) 내원사(內源寺)



사진 4. 桐華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863年, 높이 129cm,
 慶北 大邱市 桐華寺 毘盧岩

사진 4. 동화사(桐華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863년, 높이 129cm, 경북(慶北) 대구시(大邱市)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岩)



사진 5. 證心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9세기, 높이 90cm, 全南 光州

사진 5. 증심사(證心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9세기, 높이 90cm, 전남(全南) 광주(光州)



사진 6. 雲門寺 石佛坐像, 高麗前期, 慶北 清道

사진 6. 운문사(雲文寺) 석불좌상(石佛坐像), 고려전기(高麗前期), 경북(慶北) 청도(淸道)



사진 7. 佛國寺 金銅毘盧遮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높이 177cm, 慶北 慶州 佛國寺

사진 7. 불국사(佛國寺) 금동비로자나불좌상(金銅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높이 177cm, 경북(慶北) 경주(慶州) 불국사(佛國寺)



사진 8.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9세기, 홍천(洪川) 물걸리(物架里)



사진 9. 영탑사(靈塔寺) 금동삼존불상(金銅三尊佛像), 고려시대(高麗時代), 높이 51cm, 충남(忠南) 당진(唐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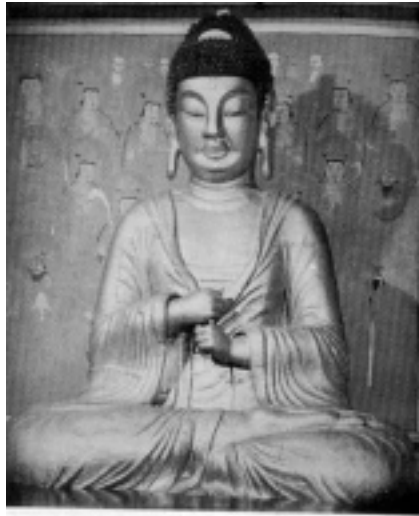


사진 10. 寶林寺 鐵造毘盧舍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858年, 높이 273cm,
全南 長興

사진 10. 보림사(寶林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858년, 높이 273cm, 전남(全南) 장흥(長興)



사진 11. 靑岩寺 修道庵 石造毘盧舍那佛坐像,
統一新羅時代, 높이 251cm, 慶北 金陵

사진 11. 청암사(靑岩寺) 수도암(修道庵)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높이 251cm, 경북(慶北) 진릉(金陵)



사진 12. 청풍(淸風) 석조불입상(石造佛立像), 나말여초(羅末麗初),
높이 333cm, 忠北 堤原郡 淸風面

사진 12. 청풍(淸風) 석조불입상(石造佛立像), 나말여초(羅末麗初), 높이 333cm 충남(忠北)
제원군(堤原郡) 청풍면(淸風面)



사진 13. 靑龍寺 石造佛坐像, 統一新羅時代 9세
높이 93.5cm, 慶北 醴泉

사진 13. 청룡사(靑龍寺) 석조불입상(石造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9세기, 높이
93.5cm, 경북(慶北) 예천(醴泉)



사진 14.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중(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中) 오른쪽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 고려초기(高麗初期), 높이 183cm,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사진 15.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상(石造菩薩像), 고려초기(高麗初期), 높이 92.4cm,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사진 15.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상(石造菩薩像), 고려초기(高麗初期), 높이 92.4cm,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사진 16. 오른쪽 협시보살상의 뒷면

사진 16. 오른쪽 협시보살상의 뒷면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중(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中) 높이 183cm,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왼쪽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 고려초기(高麗初期)

사진 17.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중(塑造毘盧遮那三尊佛像中) 높이 183cm, 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 송나면(松羅面) 왼쪽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 고려초기(高麗初期)



사진 18. 개태사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中 脇侍菩薩立像

사진 18. 개태사(開泰寺) 석조삼존불입상중(石造三尊佛立像中) 협시보살입상(脇侍菩薩立像),
고려(高麗) 940년 높이 321cm, 충남(忠南) 논산군(論山郡) 연산면(連山面)



사진 19. 유점사(楡岾寺)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높이
32.2cm



사진 20.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높이 54.5cm, 湖巖美術館 소장
(舊吳榮信 소장)

사진 20.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높이 54.5cm, 湖巖美術館 소장(舊吳榮信 소장)



21.石窟庵 普賢菩薩立像, 統一新羅
8세기 중엽, 慶州 吐含山

사진 21. 석굴암(石窟庵) 보현보살입상(普賢菩薩立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8세기 중엽, 경주(慶州) 토함산(吐含山)



사진 22. 감산사(甘山寺) 석조미륵보살입상(石造彌勒菩薩立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719年, 높이 183cm,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소장



사진 23. 칠불암(磨崖三尊佛) 왼쪽 협시보살입상(脇侍菩薩立像)
 統一新羅時代 8세기 전반, 慶州 南山

사진 23. 칠불암(磨崖三尊佛) 왼쪽 협시보살입상(脇侍菩薩立像), 통일신라 시대(統一新羅時代 8세기 전반, 경주(慶州) 남산(南山))



사진 24. 雁鴨池 出土 金銅三尊板佛坐像,
統一新羅時代 7세기末

사진 24. 안압지(雁鴨池) 출토(出土) 금동삼존판불좌상(金銅三尊板佛坐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7세기 말(末)



사진 25.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岩) 3층석탑내(層石塔內) 금동불상장식판(金銅佛像裝飾板),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863年,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소장



사진 26. 寒松寺址 石造菩薩坐像, 高麗時代,
높이 56cm, 강릉 시청 소장

사진 26.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石造菩薩坐像), 고려시대(高麗時代), 높이 56cm, 강릉 시청 소장



사진 27. 銅造菩薩像, 高麗前期, 높이 14cm,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사진 27. 금조보살상(銅造菩薩像), 고려전기(高麗前期), 높이 14cm,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소장



사진 28. 동조보살좌상(銅造菩薩坐像), 고려시대(高麗時代), 높이 15cm,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 박물관(博物館) 소장



사진 29. 금동보살좌상(金銅菩薩坐像), 고려전기(高麗前期), 높이 41cm, 관야정(關野貞) 소장